일하며 생각하며

ESSAY

사랑이 感應하는 건축을 위하여

朴時翼／도봉건축사사무소

Ⅰ. 水脈과 地電流

주택의 안방 밑의 지하에 수맥이 있는 집에서는 주인이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이 최근 일반상식화 되어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수맥에서 발생하는 水氣를 차단하기 위하여 銅板을 사용한다는 것도 일반화 되어있다.

즉 지하에는 위치에 따라서 수맥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 수맥의 直上部에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특히 취침을 할 경우 이 수맥은 사람의 신체에 나쁜 感應을 주어서 질병을 발생하게 되는 까닭에 결국 수맥 위의 주택은 좋지 못한 집이 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독일에서는 지하에는 위치에 따라서 강한 지전류가 통과한다고 발표되었다. 침실의 지하에 강한 지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이 침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일찍 죽게 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고양이는 오히려 강한 지전류가 흐르는 공간을 더욱 좋아한다고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침실의 지하에 강한 지전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전류를 다른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기계도 개발되어 지전류로부터 발생되는 질병의 氣에 대한 감응을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수맥이나 지전류 이외에도 무한한 종류의 氣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거주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氣를 흡수하게 되어 그 감응을 받게 마련이다. 즉 건축공간에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는 까닭에 사람에게 이로운 氣가 있는 집은 吉한 집으로, 그리고 이롭지 못한 불리한 氣가 있는 凶한 집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와같이 사람은 주어진 공간에서 발생하는 氣에 항상 감응되고 있는만큼 자연과 건축물에 분포된 氣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 이치를 건축공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Ⅱ. 自然과 人體의 구조

사람은 누구나 하늘과 땅 그리고 태양과 물 등의 무한한 자연공간의 덕택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은 인간의 아버지이며 땅은 어머니가 된다. 그 중에서도 푸르고 무한한 하늘은 자연의 근본이 되며 지상 만물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하늘의 큰 공간에는 만물을 창조한 하느님이 계신것으로 모두가 믿고 있다. 이러한 사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을 높이 받들고 있다.

한편 사람들은 땅위에서 자라나는 풀과 열매를 매일 매일 음식물로 먹고서 살아간다.

땅 위에 흐르는 강물도 어머니의 젖과 같이 인간에게는 生命水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땅은 인간을 낳아주고 키워주는 어머니와 같다. 이러한 관계로 땅을 어머니처럼 섬기며 존경하는 地母思想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하늘과 땅은 모두 인간과 만물의 생명체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창조의 힘은 바로 자연도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근래 도입된 서양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에 대한 인식을 잘못 바꾸고 있다. 즉 서양의 地理學的 개념으로 보면 자연, 특히 땅은 일종의 鑛物로서만 취급되어 전혀 생명력이 없는 無生物로서 해석한다. 그리하여 땅과 인간과의 관계도 땅은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상품으로 밖에는 취급하지 않거나, 식료품을 생산하는 기계적인 물체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건축공간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은 커다란 주택이며 부모이다. 그러므로 宇宙를 「집」이라 하였다.

하늘은 인간의 지붕이며 땅은 인간의 방바닥이다. 그리고 동서남북은 인간의 4面 벽이 된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삼고 태어난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사람의 머리는 둥글게 신체의 상부에 위치하여 하늘의 무한한 형태를 상징한다. 사람의 몸통은 편편하여 땅을 닮았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동서남북을 축소하여 2개의 다리와 2개의 손, 즉 四肢를 만들었다. 하늘에서 빛나는 해와 달은 사람의 얼굴에 두 눈으로 빛을 발산케 하였다. 하늘과 땅사이에 水分이 상승하고 또한 비로 내려와서 서로 연결하듯이 인체의 내부에도 피와 혈관을 만들어 피의 순환을 통하여 머리와 몸통이 한몸으로 되게 하였다.

사람의 머리도 전면은 얼굴이 되어 밝음과 낮을 의미하며, 얼굴의 뒷면은 검게하여 밤의 세계를 축소하였다. 그리고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축소하여 머리카락을 만들었다.

Ⅲ. 五常

하늘과 땅사이에 가득찬 氣는 춘하추동으로 변화하며 이 변화되는 氣는 인간에게 仁義禮智信 五常의 성품을 만든다. 따듯한 봄날의 아침 햇빛은 겨울에 움추려든 각종의 초목들을

사람에게 좋은 감응을 주는 건물은 훌륭한 인품을 만들어 주는 귀한 공간이며, 반면에 흉한 감응을 주는 건물은 불행한 인간을 만드는 공간이다.
사람에게 유익한 감응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앞에서 언급한 仁·義·禮·智·信의 五常역시 그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중에서도 더욱 귀중한 하나를 선택한다면『사랑』의 감응이야말로 오늘날에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황금만능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감응이 발생되는 공간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모두 부드럽게 펴주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기운은 사람에게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마음씨를『仁』이라 하였다.

가을 저녁의 쌀쌀한 바람은 나무가지를 매마르게하고 더욱 나뭇잎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주게 만든다. 이것은 나무의 뿌리와 몸통만이라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나무는 슬픔을 머금고 자신의 팔과 같은 나뭇잎과 열매등을 자기몸에서 떼어낸다. 이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희생과 같다. 이러한 마음씨를『義』라고 하였다.

한여름의 태양이 불빛을 밝고 뜨겁게 발산하면 나뭇잎이 무성하게 그 열과 빛을 받아들여서 화려한 꽃을 피워서 태양의 氣에 화답한다. 그러므로 여름의 나무는 나뭇잎으로 푸짐하게 몸치장을 하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꽃을 올려서 즐거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나무의 성질과 같이 사람이 푸짐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성품을『禮』라고 하였다.

사람의 형태가 자연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듯이 사람의 행동도 자연의 활동과 일치한다. 아침에 해가 뜨면 사람은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해가 서산을 넘어가서 햇빛이 없으면 사람은 다시 드러누워서 행동을 중지한다. 이와같이 태양의 뜨고 짐은 사람의 일어나고 드러눕는 동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날씨가 화창하면 사람의 마음도 즐거우나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에는 누구나 두려워 하게된다. 이와같이 사람의 구조나 생활은 자연과 일치하고 있다.

추운 겨울에는 만물이 꽁꽁얼어붙어서 나무도 죽음과 같은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운은 몸속 깊이 보관하여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냉정하게 기다린다. 이와같이 냉정하게 때를 분석하는 마음을『智』라 하였다.

仁·義·禮·智 서로 다른 종류의 기가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융합시켜주는 힘이『信』이다.

이와같이 사람의 성품을 구성한 仁義禮智信도 그 근원은 바로 自然에 유동하는 氣의 감응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Ⅳ. 사랑의 氣와 建築

사람의 감정은 주변환경의 氣감응에 의하여 수시로 바뀌게 마련이다. 이것은 사람을 구성한 氣와 주변공간의 氣가 항상 상호 유통하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공간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되지만 지저분한 곳에서는 누구나 불안하고 불쾌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있어서도 안정되고 중심이 잡힌 건물에서는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편협하거나 중심이 잡히지 않은 건물에서는 불안해진다. 그러므로 건축공간의 氣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의 성격을 고정시키고 인격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같이 건물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지만 일단 만들어진 건물은 그 氣로 사람을 만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은 바로 인간을 만드는 작업과 비견된다. 과거 孟子의 어머니가 孟子의 교육을 위하여 세번씩이나 이사하였단 사실도 바로 氣감응의 이론과 일치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좋은 감응을 주는 건물은 훌륭한 인품을 만들어 주는 귀한 공간이며, 반면에 흉한 감응을 주는 건물은 불행한 인간을 만드는 공간이다.

사람에게 유익한 감응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앞에서 언급한 仁·義·禮·智·信의 五常역시 그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중에서도 더욱 귀중한 하나를 선택한다면『사랑』의 감응이야말로 오늘날에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황금만능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감응이 발생되는 공간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건축공간에서 사랑의 감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사가 공간에 사랑의 氣와 혼을 주입하여야 되겠다. 수맥과 지전류는 피함은 물론이며, 하늘과 땅을 사랑하며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으로 건물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감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감응을 받게할때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건축사의 업무를 일부분이나마 수행한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건축사들이 모두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건축주와 사회에 이바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건축물이나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사회계층, 까다로운 일부의 건축관계 법령, 그리고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등은 건축사의 훌륭한 업무에 때때로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사는 여기에서 좌절하거나 불평만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오직 건축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건축을 통한 사회의 봉사정신을 더욱 가다듬어 준비하고 정진하는 작업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情이 유독히 많은 한국의 전통사상을 발판으로 하여 사랑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모두 즐거운 감응에 춤추는 지상천국을 만들자.